

“난계국악축제 넘어 세계로”

무주군, 영동군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성공 기원 챌린지 동참

무주군이 3일 영동군의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성공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악의 고장 영동군이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개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그동안 난계국악축제를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온 영동군이 이제는 세계국악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와 더불어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3일 영동군의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성공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는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무주군과 영동군과의 인연은 2007년 3도 3시군 관광협의회(자연생태계의 보고 휴양과 레저, 반딧불축제의 고장 무주·국악과 과일의 고장,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의 고장 영동·대한민국 인삼의 메카, 인삼축제의 고장 금산)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3도3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 관광 상품 홍보, 특화상품 판매, SNS 홍보, 해외관

광 유치 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돈독해지고 있다. 한편, 충북 영동군은 조선 궁중음악을 토대로 국악의 기초를 마련한 난계박연의 출생지이며 올해 10월이면 53회째 영동난계국악축제를 개최하는

자타공인 국악의 고장이다. 영동군에는 영동군립 난계국악단을 비롯해 주민들로 구성된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과 5개 초·중·고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활동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전북형 청년마을 만들기 ‘탄력’

파머스에프엔에스 with 무작정농부·산골남만 사업 대상 선정

무주군 관내 단체 2곳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전북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에 선정돼 각각 사업비 8천만 원(도비 60%, 군비 40%)을 지원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선정 단체는 무풍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with 무작정농부(대표 김동영, 서선아)’와 안성면 소재 ‘산골남만(대표 공병석, 선수진)’으로, ㈜파머스에프엔에스 with 무작정농부는 ‘무풍별궁’ 만들기를 주제로 별궁 살아보기와 마을브랜드 등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청년 농부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지역

살이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을 활용한 브랜드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활력충전과 낭만이 있는 농촌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골남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비타민도사라 개발, 지역민과 연계한 비타민웃자리 조성, 그리고 도농 교류를 위한 비타민MT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무주군은 이 사업 외에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2023년 청년소통공간활성화 사업’에도 선정이 돼 청년 소통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청년활동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다각화를 모색해 기발함과 부지런함이 녹아든 청년들의 노력들이 요소요소에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전북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 단체를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촌 빈집 실태조사 나선다

장수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며, 전기·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과 빈집과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주가 동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귀촌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철거 및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량 저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개소

진안군, 맑은 물 공급체계 강화 위해 개소식 갖고 본격 운영

진안군은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량 저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018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돼 국내 물 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사업과 연계된 시설이다.

예산액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56㎡의 지상3층 규모로 시설을 구축했으며 배수지 및 블록별 계측 모니터링, 분석, 제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시스템은

군 전체 상수관망을 블록으로 구분 및 계층화(대블록 6개, 중블록 13개, 소블록 23개)하고, 수량, 수압, 수질,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진안군은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해 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통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체통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수도 사고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사고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진안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무더위쉼터·지진옥외대피소 특별점검

장수군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와 지진옥외대피소 특별점검에 나섰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5월 중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 및 냉방기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무더위 대응을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 233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대기 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 임차 운영 등을 통해 폭염 대비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관내 지진옥외대피소 24개소를 점검하고, 변색으로 인한 지진안내대피소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에 따라 대피시설 관리자, 안내원 등 비상연락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음·면 및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등 관리자를 지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

진안군이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하는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공간정보란 객체에 대한 위치·속성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을 가리킨다.

이번 교육은 공간정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도점검을 겸한 보안교육으로서 드론의 안전사고 대비 및 촬영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중요성과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디지털 플랫폼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1:1,000 수치지도 제작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업무 활용방안에 대해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며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취급 및 운전 시 부주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사용 시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라북도 내 농기계사고는 총 509건으로 연평균 약 170여건이 발생했으며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수확기인 가을철까지 지속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고 영농인력의 고령화 및 영농방식의 기계화 등으로 인해 각종 농기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작업 시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 착용 금지 및 안전화 착용 등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 착용 △작업 전·후 점검 및 정비 실시 △추기적인 부품 교환 △동승자 태우기 금지 △음주운전 금지 △후미등·비상등 같은 등화장치 부차 및 작동 등 농기계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